

시점 판단? 진전 판단!



8차 집단교섭, 역시 안 없어

6월 23일(목) 2022년 집단교섭 8차 교섭이 열렸다. 사용자측은 11개 사업장 20명, 노동조합은 11개 사 56명이 참가했다.

대한솔루션에서 사용자 대표로 여는 말씀을 시작했다.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열심히 일하는 점 감사, 중앙교섭 결렬됐는데 집단교섭 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노조는 다음 주 일괄 조정접수한다. 지금 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노사가 같이 산다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안이 진척되길 바란다”며 교섭의 진전을 촉구했다.

중앙교섭 결렬, 사업장 간 조율 이유

사용자는 중앙교섭 결렬과 사업장 간 의견조율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아직 제시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말했다.

조합은 “중앙교섭 결렬로 어렵다는 점 이해는 하지만 지부 요구에 관해서는 집단교섭에서 충분히 안 낼 수 있는데” 8차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주 모여 5분, 10분 비효율적인 교섭을 하지 말고, 공감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지부 각 사업장 대표들은 이어서 ‘사용자가 안을 진전할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사업장 간에 의견이 안 맞는 쟁점은 어떤 부분이고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시점 판단보단 진전 판단

교섭을 진전하자면 각 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노동조합도 고민과 논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은 “통합안 준비가 어렵다. 죄송하다. 논의가 성숙되는 시기 있더라. 좀 더 이해해 달라”며 각 사별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부장은 “몇 년간 집단교섭 요구 최소화 해왔다. 조정 가더라도 결렬하지 않고 최대한 대화노력 해왔는데, 안이 없으면 고민이 된다”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각 사업장에서도 “대외 여건 어려운데 빠른 진행이 노사 모두에게 좋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바뀐 건가”, “조합원과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쟁점이 되는 사업장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했으나, 사측은 “스스로 서로 설득하고 제시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잠간의 정회와 사용자 논의를 거쳤으나 8차 교섭에서 진전은 없었고, “오늘 대화 바탕으로 다음 교섭에서는 진전된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측 입장으로 교섭을 마쳤다.

차기교섭은 6월 30일(목) 14시, 모베이스전자에서 열린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금속노조 일정에 맞춰 일괄 조정에 들어간다.

교섭 후 교섭위원들은 대한솔루션 현장순회를 하며 조합원을 만났고, 지부 임원들은 지난 주부터 7월 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를 진행 중이다.